|  |
| --- |
| **대한민국 노인 연령 인구의 소비 패턴 분석 보고서** |

**SKKU Consulting**

**소비자학과 홍기운**

1. **노인인구 특성 개요**

**<고용 구조>**

60-90세의 노인 연령 인구는 은퇴에 접어들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여 노후를 보내고 있어 고정된 수입이 존재하는 20~60대 연령층과는 다른 소비 형태를 보입니다. 성별을 나누어 보았을 때, 남성 인구는 아직 근로 상태에 남아 있고, 여성 인구는 대부분 집에서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정통적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고용 형태가 크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 계층>**

조사 응답자의 **17%**가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대부분 비혼 상태인 동시에 미 고용 상태인 독거 취약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혼 상태 여부/고용 상태 여부에 따른 소비 패턴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분야별 소비 패턴 분석**

**<분야에 따른 월 소비 평균> -** 단위: 만 원, 기간: 지난 1년

응답자의 평균 총 소비는 155만 원이며, 그 중 의(의류)/식(식비)/주(주거비) 평균 소비는 3.91만 원/27.9만 원/9.78만 원입니다. 노인 계층에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의료/보험비는 10.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보건 분야에서 **전체 가구 소비의 식품/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1]](#endnote-1)**보다 **노인 인구의 식품/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 별 소비 패턴 차이**>-성별, 지역

|  |  |  |  |  |  |
| --- | --- | --- | --- | --- | --- |
| 구분(단위: 만 원) | 식비 | 의류 | 의료 | 주거비 | 소비 평균 |
| 남 | 20.5 | 2.73 | 7.89 | 6.98 | 113 |
| 녀 | 33.5 | 4.79 | 13.2 | 11.9 | 187 |

남성-근로, 여성-가사노동의 수입 구조는 대조적으로, 소비는 여성 인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수입과 동일하게 여성이 가사를 담당하는 정통적인 경제 활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구분(단위: 만 원) | 식비 | 의류 | 의료 | 주거비 | 소비 평균 |
| 수도권 | 30.3 | 3.53 | 12.1 | 10.8 | 169 |
| 비수도권 | 27.4 | 3.98 | 10.1 | 9.58 | 153 |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대한민국의 평균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격차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도권 위주의 기업 근무 형태를 보이는 청장년층 인구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 인구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인사이트**

도출된 분석 결과는 노인 인구의 **정통적 경제활동 패턴** 은 **여성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른 소득 감소/질병 증가는 각각 식비 비중의 증가(높은 엥겔 지수), 보건 지출의 증가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여성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의료 서비스 중심의 마케팅**이 주효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청/장년층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농촌 지역에 1인 혹은 부부끼리 거주하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겨냥한 주거 서비스의 제공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R001&conn\_path=I2 [↑](#endnote-ref-1)